

Youth #3

CICA Museum

September 21 - October 07, 2018

2018. 9. 21 - 10. 07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Ji Hyoung Gong/ 공지형, Yoo Kyung Hwang/ 황유경, Da Bin Kim/ 김다빈, Dasul Kim/ 김다솔, Jeonghoon Kim/ 김정훈, Young Hyun Kim/ 김영현, Jonathan Michael Korotko, Seohyung Kay Lee/ 이서형, Joomin Oh/ 오주민, Seok-Woo Song/ 송석우, Rebecca Tanda, Oaklee Thiele, Daae Won/ 원다애

Ji Hyoung Gong/ 공지형

“East, West, South, North” (2018)

공지형 (b.1995)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시각적 환경에 자유로운 형식과 유연한 태도로 캔버스와 대면한다.

의존적인 시각적 ‘받아들임’ 속에 그녀는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시선을 기반으로 자연스레 바라본 것들을 재시각화한다. 그 과정 속,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시선이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 사유의 과정들이 무엇을 통해 구성되었나 다시 물음을 던진다.

공간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녀는 캔버스 내에서 공유되는 차원의 유동성에 새로운 시각적 요소의 재조합과 가능성을 구현한다.

Ji Hyoung Gong/ 공지형

초등학교 6학년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민을 간 후 그녀는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성장했다.

매번 바뀌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끼워맞춰야 했던 그녀의 성장 과정은 그녀가 Chelsea College of Arts 을 입학여 그녀의 관심사인 시각적 환경의 재시각화를 회화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동안 그녀는 다양한 그룹전시를 통하여 작가 개인이 느꼈던 공간 속의 경험을 더욱 섬세하고, 다층적 장소로 재현시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되묻는다.

Yoo Kyung Hwang/ 황유경

“My Mind Is Melting” (2018)

“Room of Transformation” (2018)

“Preparing for the Jungle” (2018)

<My Mind Is Melting>

문득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누군가는 어린 나의 마음이 녹아 없어져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인지 혹은 모두 녹여버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Room of Transformation>

나의 방 안에서 보낸 시간들로 인해 나의 방은 점점 내가 되어가고 있다. 나를 이곳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있는 동안 나는 여기에 묶어버렸다.

<Preparing for the Jungle>

우리 방 밖의 모든 공간을 정글이라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방 밖을 나가기 전의 순간이 정글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정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Yoo Kyung Hwang/ 황유경

NYU Tisch School of the Arts 2015년 졸업생으로 Film & Television을 전공하고 프로덕션 인턴 과정을 거쳐 CJ E&M에서 PD로 활동하다 현재 회화 및 일러스트 작가로 전향하였다. 스토리를 구상해왔던 학업 경험과 업무 경험을 살려 주로 작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평범한 일상적 장면에 초현실적인 색감을 입히고 또 존재하지 않는 형체를 만들어 새로운 이미지와 내러티브를 창작하고 있다.

Da Bin Kim/ 김다빈

“군중심리” (2018)

“Off” (2017)

“공회전” (2018)

“1-1=1” (2018)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모든 TV 방송에서는 속보를 전달했고, 신문기사에서는 온통 이 끔찍한 사고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언론매체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선 은폐하고 침묵했다. 이때부터,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떠들고 있는 ‘껍데기’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이야기들을 상상하는 습관이 생겨 버렸다. 사회가 만들어 버린 베일을 벗기고 내가 상상한 그 속의 진실을 작업으로 표현하면서 사회에 대한 나의 갈망을 해소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껍데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내 작품 속에서 빛과 그 빛이 비춰지는 마이크나 확성기와 같은 오브제의 그림자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마이크나 확성기에 비추어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는 언론의 정치적인 모습을 은유한다. 그리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마이크와 공간의 구석에 매달려 허공을 향해 가끔 설치된 확성기는 그림자로 표현된 허구적인 지지대와 함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전달하는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다.

초기의 작업에서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영웅을 사진으로 출력하고, 그 사진에 빛을 비추어 사진보다 거대한 그림자가 맺히게끔 설치했다. 그림자는 내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이지만 그림자가 주는 허구성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탈함을 표현하였다. 이 때의 빛은 사진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허상의 그림자로 만드는 이중적인 허구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미지와 그림자로 만들어지는 이중적인 허구의 구조는 관객이 모래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그 자리를 떠나면 모터에 의해 좌우로 흔들리며 글이 지워지는 ‘썰물’ 작업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썰물’ 작업은 시간에 의해 지워지는 기억과 흔적을 다룬 작업이다. 기록되지만 동시에 지워지는 모래위의 흔적은 빛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허상의 신기루와 같은 일시적인 발현의 변형이다.

Da Bin Kim/ 김다빈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를 믿었던 적은 사실상 없다. 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아닌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집중한다.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여 작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Dasul Kim/ 김다솔

“Multiverse 3” (2018)

자연스럽다는 것은 뭘까? 어릴 적 나는 자유로운 아이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섞이며 공동의 규범을 배우고 무얼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육되었다. 착한 아이는 뛰어다니면 안 되고 말을 크게 해서도 안 되며 선생님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복종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해선 안 되고 물어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해야 한다고 배운 대로 움직이고 있는 내가 부자연스러웠다. 때때로 답답했고, 어른이 되어 그 답답함은 더욱 커졌다. 어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돈이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했다. 나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회의 규범과 돈이라는 권력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풀이하고 있는 존재였다. Multiverse 시리즈는 중첩된 이미지를 통해 현대사회가 과도하게 억압하는 인간의 본능과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적 계층, 그로 인한 경제적 억압과 노동의 문제를 보여준다.

김다솔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술가이다. 현실의 모순점들을 발견, 어긋난 지점들을 탐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사회구조에 질문을 던진다.

재개발 구역에 자주 살았던 나는 동네가 통째로 허물어지고 높은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 공사하는 장면을 여럿 목격했다. 며칠 전까지 사람이 살던 집이 폭탄이 터진 듯 부서졌고 곧 공사장 가림막이 세워졌다. 거기엔 대개 숲과 같은 자연의 이미지가 붙어 있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친환경 적인 이미지로 포장한 아이러니한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인테리어를 위한 벽지나 소품들은 자연을 닮은 것을 선호한다. 휴가에는 산과 바다를 가고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자연의 이미지를 소비한다. 아스팔트 바닥과 수많은 건물들로 인간 외의 동물들을 몰아냈으면서 길에 사는 동물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먹이를 챙겨준다. 이렇듯 모순적인 태도는 문명에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도 고통받는 존재로서 길에 사는 동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구속되지 않는 자연에 향수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 내가 느끼는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는 나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고 믿으며 작업을 통해 현대사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한다.

Jeonghoon Kim/ 김정훈

“#1”

“#2”

“#3”

“#4”

“#5”

표현 하는 것에 있어 어떤 방식에서든 작품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나도 그 안에 있어고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틀속에 담았다.

김정훈 작가는 사진을 중심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자신을 표현한다. 작업에 있어서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선호하고, 겉모습보다는 내용의 전달을 의미를 갖는다.

Young Hyun Kim / 김영현

“flotage” (2017)

“relation” (2017)

‘불편한 공기’

졸업 전 누구나 그러하듯 난 진로에 대해 고민했고, 당연히 불안했다. 그런 불안을 떨쳐내려 떠난 여행에서 사고가 났고, 난 크게 다쳤다.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풀어내기로 했다. 불안은 마음을 넘어 머리를 잠식했고, 어느 순간 머릿속엔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이미지들을 현실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렇게 다양한 콘티를 제작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는 나의 일상 속에서 선택된 오브제로서, 모든 이미지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의자는 나이기도, 불안이기도, 바람이기도, 부재이면서 존재한다. 의자처럼 이미지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연한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난, 아직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것을 나는 우선 바라보기로 한다.

김영현은 시각 예술가로 사진 매체를 전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된 관심을 되짚는다. 동시대 미술에서 사진 매체의 가능성을 다양한 매체, 방식과의 결합으로 연구하며, 사진 매체만의 특수한 메세지 전달에 힘쓴다.

Jonathan Michael Korotko

“Mind#3” (2017)

Largely, Korotko constructs "domestic" objects, which for him act as embodied/ anthropomorphic forms. He is interested in the self-reflective moments that happen in spaces such as a bedroom or bathroom, whether this be in front of a vanity set or a computer screen. For Korotko it is an act of understanding ones identity. He is curious about the mirror as a signifier in queer identity. Based in the idea of an awareness to ones visibility, or how one might identify. His print work suggests the idea of a mental interaction one has with themselves in front of these spaces, and what that pictorially might look like. What happens, however, when access is removed or limited. Realizing one can not find themselves in an area that felt familiar at one time, and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rejection? Objects or areas that hold a comfort through memory, or contain some sort of support, embody the same visceral qualities of queer kinship for him. Through this rejection comes a queered support.

Along with making, research is a critical part of his practice. Posing questions that he is seeking answers to, or areas he is interested in the potential of. He examines gay white cisgendered male culture. In short, he is interested in the juxtaposition to the social and political agendas of this demographic to that of achieving queerness. The hegemonic idealisms of these individuals is what he is attempting to expose. Korotko tries to construct spaces of empathy or celebration for anyone that doesn't fit to the expectancies/ adhere to hetero or homonormativity. Jonathan Korotko Youth #3 CICA, Gimpo Instructions for display Screen Print on Plexiglass, Mind 3 - Handle with extreme care (surface of print is easily susceptible to scratching)

Jonathan Korotko was born on September 30th in the year 1992. He grew up in small towns of rural Wisconsin and he loved to explore at an early age and had a curiosity his mother would call “ruthless”. Always wanting to know, learn, and simply understand, question asking was his favorite sport. His imagination acted as the vehicle on the pursuit of obtaining and realizing knowledge. He entered an undergraduate degree at Carroll University, Waukesha, WI in 2012 majoring in Fine Arts where creatively he could continue questioning concepts, theories, and histories relevant to his own identity. Within his undergraduate degree, print and bookmaking quickly became the articulation of his

art practice. For him,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via a book or within print conceptualized the thematics he was trying to grasp. Graduating in 2016, he knew there were many questions he still sought answers to. In the fall of 2017 he entered a MFA program at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 within the Printmedia division.

Seohyung Kay Lee/ 이서형

“Blooming Field” (2018) “Terracotta Field, and Pool”(2018)

The spaces and the figures in my works exist for each other. They talk to each other, and breath next to each other, as if they're people, endlessl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My work, “Blooming Field” and “Terracotta Field” are each composed with spaces with contrasting characteristics, and people – bodies, that lead contrasting ways of life. These interaction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body, in two different spaces, the forest and the city, are different yet similar.

My works are often paired with one another. I frequently receive questions about whether my works in this format are diptychs, and I almost always respond by saying that they are twins. They're similar, yet different – the uneasiness that comes from this subtle difference yet familiarity is crucial in my practice.

I inten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space it exists in, whether artificial or natural through “Blooming Field” and “Terracotta Field, and Pool”. “Blooming Field” was inspired by my time in Saint Louis, where I experienced the most intense spring (and the most intense pollen allergy) of my lifetime, which I received with almost terror-like awe. This was combined with the colors I saw when I visited Okinawa. This fear that comes from confronting this subliminal body of nature, made people build concrete walls around them, keeping them away from nature. This realization led to my creation of “Terracotta Field, and Pool”, which was inspired by so called “seaside pools”, the artificial pools that are located right by the shore. I was fascinated by the idea of man made piece of space that are artificial yet inspired by nature. These spaces are so distant from nature as they're incredibly unnatural, yet is familiar to us as they reflect a piece of natural architecture. We often witness modern day people living in these “mock nature”, reminiscing the space that are shown in “Blooming Field”. Having each other on their sides, these two works endlessly peek at each other, and whisper to each other

제 작품 속 공간, 그리고 그 공간 내에 존재하는 인체들은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듯 대화를 나누고, 또한 서로의 곁에 머물며 숨을 쉽니다. 제 두 작품, “Blooming Field” 와 “Terracotta Field, and Pool” 는 각자 상반되는 성질의 공간, 그리고 상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몸” 들을 담고 있습니다. 숲과 도시, 두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간과 사람의 교류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제 그림들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된 작품들이 diptych, 두폭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들이 쌍둥이들이라고 답하고는 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리고 그 익숙함과 다름에서 나오는 오묘함이 제 작품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Blooming Field” 와 “Terracotta Field, and Pool”은 자연적인 공간과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간 내에 존재하는 인체들, 그리고 그리고 그 인체들과 그 공간의 교감과 관계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Blooming Field”는 지난 세인트 루이스의 강렬한 봄 (그리고 제게 찾아온 강렬한 꽃가루 알러지)에서 온 저의 대자연에 대한 거의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과,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의 색채에서 얻은 영감이 합쳐져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우리만의 공간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도피에 대한 작품 “Terracotta Field, and Pool”은 최근 관광지에서 많이 접하는, 바닷가 바로 앞의 인공 수영장들을 보며, 인간이 인간만을 위한, 하지만 자연에서 따온 인공으로 만든 공간들에 대한 흥미로움에서 왔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자연과는 다른 인위적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닮은 익숙함이 공존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공간에서 살며, 곧잘 “Blooming Field”와 같은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이 두 작품들은 서로의 옆을 지키며, 끊임없이 서로를 훑쳐보고 서로에게 속삭입니다.

Seohyung Kay Lee was born in Seoul in 1995. She attended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from 2014 to 2018, where she got her BFA degree in Painting. She is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Seoul. She has participated in two group shows, For Play (2017) and coda (2018) in St. Louis, and has recently took part in group shows in Lee Seoul Gallery, Atelier Gustave (Paris), and Chosunilbo Museum.

Lee's work is based seeing one's body as space, and space as a body. Our bodies are the first thing we encounter, and the very first space that we inhabit. When we translate the body as space, and when that body exist in yet another space, that leads to "space within space" and "body within body" – which is the very focus of Lee's work.

이서형은 1995년 서울에서 태어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그곳에서 BFA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활동중이며, 2017년과 2018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그룹전시 For Play와 coda에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리서울갤러리, 파리의 Atelier Gustave 그리고 조선일보미술관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이서형의 작품은 몸을 하나의 공간으로, 그리고 공간을 하나의 몸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모든 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그리고 사는 공간은 우리의 몸이다. 몸이 공간으로 해석되고, 그리고 그 몸이 또 다른 공간안에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공간 안의 공간", 그리고 "몸 속의 몸"이라는 주제가 이서형 작가의 작품의 바탕이다.

Joomin Oh/ 오주민

"Silent Crowd #1" (2016)

"Silent Crowd #2" (2017)

"Silent Crowd #3" (2016)

The Faces that being passed by inadvertently express agony, hope or aloofness. Their voices and movements are speaking to every one and no one at the same time.

무심코 지나치는 얼굴에서 권태, 희망 또는 관조를 느낀다. 그들의 목소리와 몸짓은 동시에 모두 또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

사와 욕 그 사이 어딘가의 **오주민** 자의와 타의 그 사이 어딘가에 의한 관찰자

Seok-Woo Song/ 송석우

"IDENTITY : 정체성의 사유" (2017)

"IDENTITY : 정체성의 사유" (2017)

앞으로 나아갈 과정의 그림을 그려보며, 문득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라는 자아의 질문을 던지곤 한다. 폭풍처럼 흔들리고 고민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를 가지면서 비릇된 불완전체의 시선을 나만의 감정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은유를 통해 현재 모습을 흑백의 이미지로 투영시켜 그 크고 작은 세상 속에서 지루하지만 익숙한 시간과의 대립 구도를 가지고 예기치 않은 혼돈의 시선을 나타낸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과 가장 가까운 정서를 불러 일으켜 어떻게 보이는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싶었다.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의 당연함은 일상이라는 익숙한 흐름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며 어느새 20대 청춘과 이 익숙함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지나간 시간에 대해 더듬어 보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때로는 현실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반영하며, 누구나 한번씩 겪어보았을 어떠한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대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나타낸다.

“상처는 모르는 척 하면 할수록 커지고, 계속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중간 과정 없이 이러한 해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나는 그 중간과정을 거쳐왔고, 고통을 겪었다.” 각기 다른 시간, 공간, 대상들을 조합하여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들을 만나게 되며, ‘나’ 라는 존재에 현실과 마주하는 미묘복잡한 감정을 대신하였다.

나는 나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을 어떻게 사진적인 방법으로 전환해 보이고 있는가를 사적인 나의 감정들과 형태들을 지극히 추상적인 표현들로 하여금 대중들에게 다양한 해석과 감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석우(1993~)는 2012년 대구예술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를 입학하여 순수 사진을 전공하였으며, 전체 수석으로 졸업(2018), 현재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사진디자인 석사과정으로 재학중이다. 주로 사회적인 요소와 인물과의 대립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관련하여 작업하고 있다.

2018년 <IDENTITY : 정체성의 사유> 전시를 비롯하여 총 3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2018년 제17회 동강국제사진제 거리설치전 <영월햇살>, 동강사진박물관 그리고 2018년 대구사진비엔날레 국제젊은사진가전 <인식의 기초 II>, 대구예술발전소 등등의 전시들을 비롯해 총 26회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Rebecca Tanda

“The Family Album:Men at work” (2018)

This piece is part of a series where I animate photos that my grandmother took from the early 1930s onwards to the 1970 of the Tyrol region in Austria. I begin by transferring the photographs with acetone onto lithography stones, and then building up a more complex image and adding fantastical elements with crayon and tusche, before scanning it and animating the composition. I was intrigued by the repetitive gesture of tilling – an act that is both violent but also caring towards the earth.

Rebecca Tanda (1994) is an Austrian-American artist based in Chicago. A graduate student at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he has been exhibited in Hong Kong, Beijing and Chicago. Using the vehicles of animation, sculpture and printmaking, she produces works that grapple with the notions and manifestations of space, power and mythology. Most recently, she has been invited as a fellow by Franconia Sculpture Park.

Oaklee Thiele

"Cricket" (2018)

Through my work I examine how the experiences of a modern day woman can influence her personal state. I portray different women during various stages in their lives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sisterhood between them as they cope with similar issues such as anxiety, loss, and self-esteem. This painting in particular features Cricket, a native Oklahoma woman and member of the Choctaw tribe. To highlight her calm but confident demeanor, she is painted in isolation while standing in a powerful pose as she stares directly at the viewer. The small scale of this pastel painting assists in communicating a sense of intimacy. Pastel is my preferred medium as it allows for exploration with instantaneous results. I create imagery through large blocks of unblended color. Often times, I am more concerned with formulating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colors over the clinical aspects of the painting.

Oaklee Thiele Born in 1999, Oaklee Thiele is a native of Springfield, Illinois and has shown her work in galleries acros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London. Oaklee is largely involved with her community and has been creating large-scale public works since 2014. Her work mainly discusses banal, everyday events and is held in a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Grand Rapids, Michigan, U.S.A.

Daae Won/ 원다애

“Serendipity series-Beige” (2017)

“Serendipity series-Green” (2018)

The Serendipity Series work begins with the process of mixing the liquid state of polyurethane with materials such as polyethylene, polystyrene or nacre. The mixture is poured into a mold by sketching spontaneously. The liquid form of polyurethane is then mingled with pieces of materials or blended with other liquid polyurethane with different hardness, creating diverse combinations. These intentional processes continues several steps to create the unintentional product. The final outcome of the work, therefore, represents the accumulation of period with moments of coincidence and the evidence of different possibilities at each moment.

Serendipity 시리즈의 작업은 폴리에틸렌, 자개 혹은 폴리스티렌 등의 재료 조각들을 폴리우레탄 용액과 혼합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즉흥 스케치를 하듯 혼합 용액이 몰드 내에 부어진다. 우레탄 용액이 경화되며 재료 조각이 섞이거나, 다른 경화도를 가진 우레탄 용액이 서로 어우러지며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렇듯 의도 되어진 임의의 과정들이 여러번 반복되어지고, 예측 불허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작업의 결과물은 여러번의 우연의 순간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시간의 축적물이자, 여러 순간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내재했던 시간의 증거물이다.

Daae Won (1994) is a Korean artist and designer born in Japan and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Seoul. She received her D.N.A.P (Diplôme National d'Arts Plastiques) with Honours in Object/Space Design from the Ecole Supérieure d'Art et de Design, Reims, France in 2017. She explores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material, and continues the experimental work within both handicraft and design. She often expresses her work by utilizing polyurethane such as the 'Serendipity Series', proving the new formation and possibility of the materia

원다애 작가 (b.1994)는 일본 출생으로 프랑스의 Ecole Supérieure d'Art et de Design de Reims 에서 Object/Space design 전공으로 2017년에 우수학위를 수여받고 졸업하였다. 원다애 작가는 재료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며, 공예와 디자인 두 영역에서 자유롭고 실험적인 형태의 작업을 진행중이다. 주로 폴리우레탄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Serendipity series를 통해 재료의 새로운 형태와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